

요약문 모집 공고

제 3 회 협동조합 법률 국제 포럼

협동조합 정체성과 협동조합 법률 조화성 (harmonisation).

일치 또는 불일치?

2021 년 2 월 27-28 일 대한민국 서울 코엑스

국제협동조합연맹 설립 125 주년 기념 및 협동조합 정체성을 주제로 한 제 33 차
세계협동조합대회 (2021 년 3 월 1-3 일) 사전행사

일정변경 및 요약문 모집 재공고 안내

1

현재 코로나 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제 33 차 세계협동조합대회가 2021 년 11 월 28 일부터
12 월 3 일까지 개최하는 것으로 일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협동조합대회의 사전 행사인 ICA 협동조합 학술대회는 제 3 회 협동조합 법률
국제포럼은 각각 2021 년 11 월 28-30 일과 11 월 29-30 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들
학술행사는 세계협동조합대회의 토론에 학술적이고 분석적인 기여할 수 있는 토론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요약문 및 패널세션 제안을 다시 모집하고자 하며, 제출기한은 2021 년 4 월 5 일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본 재공고를 참조하기 바라며, 제 3 차 협동조합 법률 국제포럼 관련 문의는
lawforum@icaworldcoopcongress.coop 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배경 - 제 33 차 세계협동조합대회

2020 년은 국제협동조합연맹 (ICA) 설립 125 주년 및 ICA 협동조합 정체성 선언 25 주년을
기념하기 해였지만, 동시에 2021 년까지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전세계가

고통을 겪은 해였습니다. 그 결과로 제 33 차 세계협동조합대회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2021 년 12 월에 개최되는 것으로 일정이 조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정은 팬데믹의 전개 상황과 의료적 해법이 진전되는 추이를 고려하여, 2020 년 하반기에 ICA 이사회가 취한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협동조합대회는 협동조합 정체성과 전세계 협동조합의 심대한 사회경제적 효과를 널리 알리고 심화시키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질문들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 협동조합은 어떻게 사회를 바꾸어 낼 것인가?
- 협동조합 방식의 비즈니스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혁신적 경로를 만들어내는가?
- 코로나 19 사태와 같은 위기에 맞서 협동조합은 어떻게 회복력과 혁신을 보여주며, 지역사회를 지켜내는가?

협동조합대회는 기후위기, 지속가능발전, 갈등 및 폭력, 소득 및 부의 불평등, 성평등 및 일의 미래와 같은 단호한 해답을 요구하는 현재의 전지구적 문제들에 대해 협동조합 정체성이 어떻게 답할 수 있는지를 모색할 것입니다. 비즈니스 성과, 시장내 영향, 좋은 거버넌스와 경영 기법, 협동조합 자본의 특별한 성격 등 협동조합 정체성이 가져다 주는 경쟁력도 논의될 것입니다.

협동조합대회 준비과정에서 제안될 “행동계획”은 협동조합 운동이 전지구적 안정과 인간개발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지속가능개발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를 토론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세계협동조합대회(World Cooperative Congress)란?

국제협동조합연맹에 의해 개최되는 세계협동조합대회는 특별한 계기에만 개최됩니다. 대표적으로 국제협동조합연맹 설립 (1895 년 제 1 차 대회), 협동조합 정체성 선언 채택 (1995 년 제 31 차 대회), UN 협동조합의 해 기념 (2012 년 제 32 차 대회)

협동조합대회는 ICA 회원조직의 대표자들을 포함하여 많은 협동조합인들의 회합입니다. 2020 년 12 월로 계획되었다가 2021 년 12 월 1-3 일로 일정이 변경되어 대한민국 서울에서 열릴 제 33 차 세계협동조합대회는 유럽 외부에서 개최되는 두번째 협동조합대회이며, 협동조합 정체성의 보편적 가치를 재확인하는 기회입니다.

대회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대회 웹사이트 www.icaworldcoopcongress.coop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 3 회 협동조합 법률 국제포럼

제 3 회 협동조합 법률 국제포럼은 2021 년 11 월 29-30 일에 걸쳐 세계협동조합대회의 사전행사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ICA 협동조합 학술대회와 더불어 국제포럼은

세계협동조합대회와 주요 주제들에 대한 토론을 통해 협동조합대회의 내용을 심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본 제공고에 따른 요약문은 2021년 4월 5일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정된 요약문의 최종 원고는 2021년 7월 31일까지 제출되어야 합니다.

2020년 공고에 따라 제출되고 학술위원회에 의해 선정된 요약문 저자들은 최종 원고를 가능한 빨리 제출하시기 바라며, 최종 기한은 7월 31일입니다

배경

2016년 제 1 회 (우르콰이 몬테비데오), 2018년 제 2 회 (그리스 아테네)에 이어, 제 3 회 협동조합 법률 국제포럼이 대한민국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제 3 회 국제포럼은 국제협동조합연맹 협동조합 법률위원회의 지원과 함께 Ius Cooperativum 학회의 주최로 “협동조합 정체성과 협동조합 법률의 조화성. 일치 또는 불일치 (The Identity of Cooperatives and the Harmonization of Cooperative Laws. Match or Mismatch?)”라는 주제 아래 개최됩니다.

협동조합 법률은 1995년 국제협동조합연맹 협동조합 정체성 선언에 담긴 협동조합의 정의와 가치에 관련된 협동조합의 원칙이 법률적으로 해석된 것으로 점차 이해되고 있습니다. 이는 유엔의 2001년 “협동조합 발전에 우호적 환경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및 국제노동기구(ILO)의 2002년 “협동조합 활성화 권고 193호”에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는 협동조합 정체성을 강화하고 보호하는데 있어서 법률이 갖는 역할을 인정하고, 법학에서 협동조합 법률이 독자적 분야로서 인정받을 존재이유를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반면 국제기구의 문서들이 권고하는 협동조합 법률의 조화는 그것이 갖는 잠재적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ILO 권고 193호 18조는 “적절하고 가능한 경우, 협동조합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적 그리고 국제적 공통 법률을 발전시킴으로서 국제적 협력을 촉진시켜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 법률의 조화가 바람직한지 그리고 가능한지에 대한 의견들은 현장 실천가들이나 연구자들 사이에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반대 의견은 협동조합 아이디어와 지역 문화의 밀접한 연관을 지적하면서 조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조화에 대한 지지 의견은 다른 기업법률의 조화성 경향을 언급하면서, 다른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조화된 법률을 통해 협동조합 경쟁력 조건을 만들어낼 것이라 주장합니다. 반대 의견은 이미 많은 협동조합 법률들의 조화가 이루어졌거나 조화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고, 찬성 의견은 조화가 갖는 문제들을 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각각은 협동조합의 결사체로서의 측면과 기업으로서의 측면이라는 서로 다른 측면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 진영 모두 “조화성(harmonization)”이라는 모호한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동시에, 이를 통해 협동조합 원칙의 법률적 해석에 관련된 이슈, 즉 정체성과 조화성 사이의 일치(match)를 불일치(mismatch)로 만드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원칙이라 함은 다양한 협동조합 법률을 포함해서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함의합니다. 그러나 조화된 법률적 규칙들은 이들 다양성이 추상화를 통해 동질화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조화에 대한 필요와 협동조합 정체성의 바탕이 되는 다양한 정체성에 대한 필요를 어떻게 일치시킬 것인가가 중요한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제 3 회 협동조합 법률 국제포럼은 이러한 도전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그리고 협동조합 법률의 조화가 협동조합 원칙의 법적 규칙으로 전환시키는데 있어서 장애물인지 촉진제인지에 대한 질문을 논의하는 장이 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코로나 19 사태가 (협동조합) 법률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것입니다.

주요 주제

국제포럼에서 논의될 논문들은 다음의 두 가지 서로 연결된 질문들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1. 협동조합 원칙들에 관련된 질문들

- 협동조합들은 협동조합 원칙을 준수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가지고 있는가?
- 협동조합들은 협동조합 원칙을 정관을 통해 반영하고 있는가? 법률사회학의 관점에서의 연구.
- 협동조합 정체성 선언과 ILO 권고 193 호의 법률적 성격을 고려할 때, 입법기관들은 협동조합 원칙을 고려해야 하는가?
- 협동조합 정체성 선언과 ILO 권고 193 호의 법률적 성격을 고려할 때, 협동조합 가치와 원칙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방법들 사이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협동조합 원칙은 어떻게 법률적 원칙으로 전환될 수 있는가? 직접적으로 또는 법률적 원칙, 특별히 연대에 대한 법률적 원칙을 통해? 관련된 법률체제의 법률적 원칙을 통해? 또는 독립적으로 발전해온 협동조합 관련 법률적 원칙을 통해?
- 협동조합 원칙이 법률적 규칙으로 해석되는 다양한 방법들(“단순” 참조, 법률에 포함, 직접 도입 등)이 갖는 법률적 효과는 무엇인가?
- 비교법의 관점에서 볼 때, 법률적 전통들은 협동조합 원칙이 법률적 규칙으로 해석되는 방법에 영향을 미치는가?
- 법률에 대한 다양한 개념들은 협동조합 원칙이 서로 다른 법률적 규칙으로 해석되는 방법에 영향을 미치는가?

2. 협동조합 법률 조화성에 관련된 질문들

- “조화성”이라는 표현의 정확한 의미. 조화성, 동일화 또는 유사화? 어느 수준에서 (국가, 지역, 국제)? 무엇을 조화시키는가 (법률적 규칙, 협동조합 원칙의 해석)?
- 기존 또는 현재 계획된 조화된 과정에 대한 조사. 협동조합 원칙이 고려되는 방식에 대한 분류. 가능하다면 다른 유형의 기업 관련 법률 조화 적용과정과 비교하여 협동조합 법률의 경우에 대한 평가.
- 다양한 관점에서 “조화성”의 장점과 단점에 대한 분석. 지속가능개발 및 생산, 분배, 소비 과정에서 새로운 기술의 도입과 같은 전반적인 목적을 고려한 경제학적 관점에서.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 및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서로 다른 법률체제에 있는 사람들이 동일한 협동조합에 가입하고, 다른 법률체제 아래 있는 가치사슬 간의 조직적 통합이 이루어지는 것을 고려한 조직이론의 관점에서. 집단을 이루는 원칙의 변화 (집합적/연관적), 개인화/개별화 경향 및 협동조합의 핵심인 연대에 이들 경향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사회심리학적 관점에서.



- 조화된 해석/실행/적용이라는 관점에서 실질적인 조화를 위한 전제조건들. 법률의 “조화성”에 대한 비교법 연구가 제안하는 방법론을 고려.
- 조화된 법률의 확일성 속에서, 다양성에 대한 잠재적 수호자로서 법률이 보장하는 자율적 협동조합 정관의 역할.
- 협동조합 정체성의 담지자로서 조화된 지역적 또는 국제적 협동조합 법률?
- 협동조합 법률에 대한 1966 년 국제인권규범의 잠재적 조화 효과.

요약문 제출

논문제출에 관심있는 참가자들은 2021 년 4 월 5 일까지 영어, 불어, 스페인어, 한국어 중 하나의 언어로 된 최대 300 단어 (최대 한글 A4 한 장) 분량의 요약문을 [Ifigeneia Douvitsa lawforum@icaworldcoopcongress.coop](mailto:Ifigeneia.Douvitsa@lawforum@icaworldcoopcongress.coop) 보내시기 바랍니다.

등록비 및 참가방법

제 3 회 협동조합 법률 국제포럼과 ICA 협동조합 학술 컨퍼런스는 인터넷을 통한 참가와 서울 현장 참가가 혼합된 형태로 진행될 것입니다. 등록비는 아래와 같으며, 학술대회와 협동조합 법률 국제포럼에 통합적으로 적용됩니다.

현장 참가

- 상위소득 국가 (한국 포함) 출신 - 250 유로
- 중위소득 국가 출신 - 125 유로
- 하위소득 국가 - 무료
- 신진 연구자 - 무료
- 세계협동조합대회 등록 참가자 - 무료

온라인 참가

- 상위소득 국가 (한국 포함) 출신 발제자 - 75 유로
- 중위소득 국가 출신 발제자 - 35 유로
- 하위소득 국가 출신 발제자 - 무료
- 신진연구자 발제자 - 무료
- 발제자가 아닌 참가자 - 무료

비고

- 소득에 따른 국가 분류 현황은 [세계은행의 2020 년 세계발전지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가자의 국가는 거주지, 근무지, 소속 대학 등을 고려하여 판단될 것입니다.
- 등록비에는 학술대회 학술위원회에서 발급하는 발표 증명서가 포함됩니다.



학술위원회

위원장: 다비드 히에즈 (룩셈부르크)

위원: 안 앱스 (호주); 단테 크라코나 (아르헨티나); 험마 과하르도 (스페인); 아키라 쿠리모토 (일본); 데올린다 메이라 (포르투갈); 한스 뮌크너 (독일); 바가와티 프라사드 (인도); 윌리 타주제 (아프리카); 헤르 반 더 상헨 (네덜란드); 옥사나 블라디미로바 (러시아 연방); 박광동, 이동훈, 임형택 (한국)

공식언어

요약문은 영어, 불어, 스페인어, 한국어 중 한 가지 언어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최종 원고 역시 네 언어 중 하나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추가 정보

제 3 회 협동조합 법률 국제포럼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Ifigeneia Douvitsa lawforum@icaworldcoopcongress.coop 에 영문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협동조합대회 관련 상세 정보는 대회 웹사이트 www.icaworldcoopcongress.coop 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Ius Cooperativum 학회 관련해서는 학회 웹사이트 www.iuscooperativum.org 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별첨자료 - 컨셉노트]

제 33 차 세계협동조합대회, 2021 년 12 월 1-3 일 대한민국 서울

협동조합 정체성에 깊이를 더하다

국제협동조합연맹 설립 125 주년 및 협동조합 정체성 선언 25 주년 기념

기후변화에 맞서는 운동, 청년 및 여성들의 운동, 그리고 유엔 아젠다 2030 및 지속가능발전목표에서 정의한 환경, 경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운동, 나아가 불평등 심화에 따른 사회적 갈등 등 최근 발생하는 현상들의 핵심에는 사회적, 경제적 대전환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협동조합들은 변화를 따라갈 것이 아니라 협동조합만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해법을 제시하고 변화를 선도해야 한다. 협동조합 정체성(cooperative identity)은 협동조합이 자본과 이윤보다 사람과 공공선에 복무하는 기업으로서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 원천이다.

이와 관련한 다양한 과제와 기회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핵심 질문들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협동조합들은 ‘협동조합 정체성 선언(Statement on the Cooperative Identity)’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협동조합 운동은 경제와 사회를 어떻게 전환시키고 있는가? 협동조합 모델은 어떤 방식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가?

오늘날 협동조합들은 정체성을 바탕으로 존재한다. 협동조합들이 전 세계적으로 공통분모를 마련해오지 않았다면, 또한 이러한 공통분모가 1995년 체계적인 공통의 정체성으로 발전하지 않았다면, 협동조합들은 지금과 같이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 속에서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1995년 맨체스터에서 열린 국제협동조합연맹 창립 100주년 기념 세계협동조합대회에서는 협동조합 운동 내부의 오랜 논의를 바탕으로 협동조합 정체성 선언이 채택되었다. 선언에는 협동조합 원칙의 일곱 번째 원칙, 협동조합의 기본가치와 정의 등을 통해 전 세계 협동조합들의 공통분모가 이전보다 온전하게 반영되었으며, 여기서 도출된 다양한 기준과 함께 ‘협동조합 정체성’ 개념이 명시적으로 도입되면서 중대한 질적 도약이 이루어졌다.

협동조합 정체성에 대한 인식은 지난 25년간 상당한 진전을 보였다. 협동조합 운동 내부에서 2년간 논의를 거쳐 2015년 국제협동조합연맹 총회에서 채택된 ‘협동조합 원칙 안내(Guidance Notes on the Cooperative Principles)’는 협동조합 정체성 선언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원칙’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또한 협동조합 운동은 공통의 정체성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이후 새롭게 나타난 협동조합 유형 등 여러 협동조합들의 다원성을 이전보다 잘 포괄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국제적 인정도 이루어졌다. 2002년 국제노동기구가 ‘협동조합 활성화 권고(Promotion of Cooperatives Recommendation)’(제 193호)를 거의 만장일치로 승인하면서 협동조합 정체성은 국제사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되었다. 또한 2016년 유네스코는 독일 협동조합 운동의 신청을 받아들여 협동조합을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협동조합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세계가 급격한 변화와 다양한 문제를 겪는 지금 이는 매우 시급한 과제이기도 하다.

서울 세계협동조합대회는 협동조합 정체성이라는 개념을 기념하고 이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지난 25년간 협동조합 정체성이 발전해온 과정을 돌아보는 성찰의 장이자, 협동조합 정체성 개념이 협동조합 모델과 여타 기업 유형 및 집단행동과의 차이를 설명하는 데 있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더욱 깊이, 다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새로운 토론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세계 곳곳의 기업들은 자신의 목적을 새롭게 정의하고 있다. 다양한 기업 관행을 공개하는 것만으로는 경제와 사회의 방향을 바꾸기 어렵다는 인식에 따라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서의 작성 방식도 새롭게 규정되고 있다. B 코퍼레이션, 사회적기업, 가치금융(Banking on Values)과 같이 윤리적 가치와 공공선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부상하고 있다. 미국의 경영자원탁회의(Business Roundtable) 조차도 기업은 주주만이 아니라 모든



이해당사자들에게 대해 책임을 진다고 선언한 바 있다(기업들의 행태는 여전히 과거와 똑같지만).

세계협동조합대회는 협동조합 정체성이 개발, 환경, 평화 등 오늘날 지구적 문제들과 겹치는 일자리, 디지털 기술의 영향, 성평등 등 인간발전의 전반적 관점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토론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세계협동조합대회의 토론은 협동조합이 지구적 문제와 인간발전에 가장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선 과제들에 대한 “행동 계획”을 포함할 것이다. 국제협동조합연맹 부문 조직들은 회원조직 의견수렴을 통해 발전시킨 해당 부문에 관련된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이의 달성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안할 것이다. 이 제안들은 서울 세계협동조합대회 선언에 포함되고, 국제협동조합연맹 2020-2030 전략계획을 통해 그 실천을 관찰하게 될 것이다.